

情報化社會의 對處와 姿勢

崔 光 政

本會 副會長

本會의 85年 始務式이 지난 1月 4日 貿易會館 11층 事務室에서 全任職員의 참석하에 있었다. 本稿는 이날 崔光政 副會長의 式辭에서 要旨를 발췌 整理한 것이다.

乙丑年 希望의 새해를 맞이하여 任職員 여러 분과 家庭에 크나큰 幸運과 健康이 함께 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발표되고 있는 國內외의 景氣 動向이나 世界의 向後 經濟 展望을 두루 살펴보면 다소 視角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電子業界는 다행히도 84年度 生産이 약 85億弗로 成長하여 前年對比 26.4% 增加를 하였으며, 輸出에 있어서도 美國의 컬러TV 덤핑 提訴를 비롯한 先進諸國의 輸入規制가 많았으나 우리의 輸出 多邊化와 官民 協調 체제의 확립으로 무난히 극복하여 輸出 目標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市販도 同 14% 증가된 28億弗을 기록하였고, 設備 投資 (8,548億원) 역시 他産業에 비해 높은 增加를 보이는 등 堅實한 成長과 好況을 2年間 계속해 왔습니다.

今年에도 역시 生産은 100億弗로의 成長이 기대되고 있으며, 輸出도 60億弗의 達成을 바라보고 아울러 市販 또한 40億弗 이상으로 伸張될 것으로 보아 그 어느 産業보다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國際 市場에 있어서의 世界 經濟 與件 변화와 保護貿易主義의 강화가 점차 增大되고 있는 등 貿易 環

경의 악화에 따른 變數의 작용입니다. 今年度의 世界 經濟 展望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높은 成長으로 世界의 景氣 回復을 主導해 온 美國 經



1985年 1月 4日 始務式에서, 崔光政 副會長

濟가 前年 下半期부터 급격히 약화되므로써, 世界 景氣가 위축되고 交易量의 增加도 鈍化되리라는 비관적 見解가 많았습니다.

前年度 上半期에 보인 10% 이상의 美國 經濟 成長은 異例의이긴 했으나, 美國에 의해 시작된 世界 景氣의 회복이 餘他 先進國과 開途國으로 확산되므로써, 今年度의 世界 經濟는 前年度보다는 높지 않겠으나 3.8%臺의 안정적인 成長이 지속되고 世界 交易量의 增加도 6%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變數인 保護貿易主義가 短期間에

緩和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開途國의 外債問題로 혼란을 겪어 왔던 國際金融 질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므로, 84년에 우리나라 國際収支에 큰 부담을 주었던 國際金利의 上昇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原油價도 下落될 것이고, 기타 原資材 가격도 安定勢가 지속되리라는 豫測이 지배적인 점으로 보아 今年度 世界 經濟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크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結論적으로 85年度 世界 電子産業의 成長은 世界 景氣 鈍化에 따라 前年보다 다소 낮아지겠으나 成長率의 절대 수준은 GNP의 成長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電子製品의 경우는 家庭用機器와 部品の 鈍化가 産業用機器보다는 두드러질 것이고, 지역별로 보면 美國이 84년의 15.7% 成長에서 今年에는 12.7%로 다소 減少하는 반면 유럽은 同 3.6%에서 7.0%로 成長率이 上向되고 日本은 同 28.7%에서 12.6% 선으로 下落될 展望이며, 品目別로 강세 부문을 살펴보면, 家庭用에서는 VTR, 컬러TV, 電子렌지, 産業用에서는 퍼스널 컴퓨터 및 周邊機器, 소프트웨어, 通信機器 등이 部品에서는 半導體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85年度 輸出 여건은 작년에 비하여 다소 鈍化될 展望인데, 이는 특히 美國 輸入伸張率의 鈍化와 美國 保護貿易主義의 강화에 起因하는 것으로서, 業界의 輸出 市場 多邊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청되고 있으며, 先進國의 輸入規制 강화와 中共 등 後發開途國의 추격을 받고 있는 家庭用機器나 아직 輸出 競爭力이 없는 産業用機器보다는 部品産業 育成을 통한 輸出 增大에 力點을 두어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對内外 與件 變化를 注視하고, 우리 電子産業이 前年과 같이 高度 成長을 지속하면서 尖端 技術의 研究 開發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輸出의 增大와 經濟 成長에 있어서 牽引車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電子工業人이 이룩해야 할 時代的 召命이라 생각하고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高度情報社會의 早速한 실현을 위하여 半導體, 컴퓨터, 光通信 등 尖端 技術의 産業化를 촉진해 가는 한편 生産 基盤의 확대와 國際競爭力을 향상시켜 輸出 增大를 통해 高度 成長을 지속해 가는 이른바 電子工業의 高度化를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우리 電子産業이 當面해 있는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今年度 事業을 수행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輸出 增大를 도모해서 高度 成長을 지속해 가고자, 先進國들의 각종 輸入規制를 事前에 예방키 위한 輸出動向 分析과 事務所 및 現地 변호사 활용을 통한 貿易·技術 情報 수집 활동의 강화, 民間 通商 및 國際協力の 活性化 그리고 業界가 자율적으로 輸出 질서를 확립해 나아가도록 誘導해가는 한편 輸出 市場 개척 및 확대를 위해 시카고 常設展示場의 輸出 본격화 등을 통한 電子部品 輸出의 增大와, 尖端 技術 製品 중심의 會館內 常設展示場의 設置運營 및 海外 세일즈團 파견과 世界 유명 電子展의 참가 확대, 그리고 中堅 輸出 專門 業體 중심의 生産 基盤을 확대해 나아가는 데에 특히 力點을 두어 지속적으로 輸出을 增大할 수 있도록 諸般 支援 方案을 講究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尖端 技術의 産業化를 촉진하여 電子工業의 質的 發展을 꾀해 나아가는 데 注力하기 위하여, 研究 開發의 投資 확대를 통한 技術革新 支援制度 강화, 컴퓨터 人力의 양성을 위한 本會 附設컴퓨터훈련소의 設置 운영, 半導體·컴퓨터·光通信·VTR·New Media, 家電製品 등 尖端 技術製品의 需要 創出과 輸出 및 內需 市場 확대를 위한 支援事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情報産業의 成長 基盤을 강화해 成長 主導 産業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 制度의 확대 및 購入者 稅制 支援 方案의 강구, Computer Mind 擴散을 위한 OA 示範 事務室 設置 및 電算化 事例 弘報 및 소프트웨어 産業 育成 對策 講究, 情報 産業에 대한 각종 調查 및 資料 分析 그리고 育成 方向 제시와 컴퓨터 教育의 擴大, 國産化의 촉진과 輸出 增大策 강구 등을 통하여 今年은 情報産業의 成長 基盤을 공고히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째, 精密 部品·素材産業을 집중적으로 育成하여 部品の 자급률 提高에 의한 産業의 內實化를 도모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精密 部品の 國産化 촉진을 위해 輸入 部品の 일제 調査, 主要 輸入 部品 비교 展示會 開催, 部品の 공동 개발을 추진하여 脆弱 部품을 중심으로 한 品質 向上 指導 및 世界 유명 規格 UL, FCC 등 획득 支援 확대와 團體標準化 事業 확대, 部品の 輸出 增大 도모 支援 事業을 深化 확대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家電製品의 品質 향상과 需要 확대를 위해 特別消費의 引下, 86·88年을 겨냥한 올림픽 商品의 開發 촉진과, 에너지 절약 電氣製品의 開發 支援, 電氣用品에 대한 品質管理 教育 強化, 公正去來 風土의 조성, 廣告物의 標準化事業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電子工業의 成長 基盤을 재정비 強化하기 위해 情報産業에 대한 法的 振興 體制 講究, 電子工業의 高度化計劃 中間 評價 및 보강, 電子振興基金 造成 확대 지원, 電子工業中長期 需要 展望 등의 調查事業 등을 전개하여 電子工業의 成長基盤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今年에는 새로운 電子會館을 開館하여 振興 體制를 획기적으로 補強하고 會員 業體에 대한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0餘個 分科委員會를 포함한 각종 會議을 활성화시켜 業界 總意를 收斂할 振興 方案을 수시로 마련하고, 새로 확보한 會

館에 附設 컴퓨터 要員 訓練所를 設置하고, 電子製品 常設展示場의 開設, 新技術 情報 資料室의 운영 등 對會員 서비스의 質的 향상에 總力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째, 今年에 開催되는 第16回 韓國電子展을 명실공히 國際 수준으로 向上시키기 위해 바이어 및 購買團 유치를 위한 事前 弘報 活動의 展開과 7億8,000萬弗 이상의 輸出 商談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支援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려운 內外 情勢 속에서도 놀라운 發展과 成長을 계속해 온 민족이었습니다. 世界를 驚愕케 했던 버마 아웅산의 衝擊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작년 11月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판문점의 死線을 넘은 蘇聯 청년으로 惹起된 파문 속에서도 6,000萬 國民의 염원인 南北統一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南北 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의 개최 문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南北赤十字會談과 經濟會談의 개최를 戰術戰略의으로 惡用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므로 우리는 銳意 注視하면서 그에 따른 對策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조지 오웰의 두려운 1984年을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짓고 다시 무한한 待望의 새해를 맞이하여 雄飛의 꿈을 펼쳐나가는 時點에 서 있습니다. 南北의 平和統一도 조국의 번영과 발전도 우리 電子工業人의 두 어깨에 달려 있음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國家 전체로 보아서도 莫重한 책임을 지고 있는 電子工業振興會의 任職員들은 前近代의인 産業化 時代의 思考方式, 行動樣式과 價値判斷의 殘滓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新高度 情報化社會를 주도해 나아가갈 수 있는 研究 努力과 力量을 一層 強化시켜 가면서, 今年 한해도 활기찬 電子工業의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매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